

이오플로우 (294090.KQ)	단기 주가 상승	중장기 주가 상승	단기 주가 하락	목표주가 -
김장열	단기 주가 박스권	Attention		현재주가 46,100 원

**시장잠재력 大 (인슐린+비 인슐린 확장)+ 기술력/Capa OK+ 실행능력의 공유결합을 기대하며**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2~3조 시장 잠재력 매우 크다>**

글로벌 당뇨병 환자 21년 5.37억명 (25년 7.83억) 중 10%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이고 이중 10~15%가 1형 당뇨병 환자로 이오플로우가 우선적으로 target하는 시장이다, **현재 5백만명~향후 8백만명이 된다.** 관련,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처음에 주사기 및 인슐린 펜으로 시작 (여전히 70% 비중)했는데 하루 평균 4번 인슐린 자가 주가 필요하고 통증이 따른다. 일반형 인슐린 펌프는 1980년대초 등장한 것으로 인슐린 주입선이 있으며 혈당에 따른 정밀 주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크고 무겁고 사용의 불편함이 따르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병력이 타인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글로벌 리더인 Insulet이 2005년 10월 Insulet OmniPod라는 최초로 일회용 인슐린 펌프를** (3일 사용 vs. 이오플로우 제품 3.5일 사용) 선보였다. 일반형보다 가볍고 작고 사용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현재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한편, 17년에는 Medtronic사가 최초의 센서 연동형 일반형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를 선보였다. 센서 혈당 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오플로우가 '이오패치 X'라는 웨어러블 분리형 인공췌장 개발 중으로 23년 허가 목표로** 하고있다. 기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센서 연동으로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한다. **24년에는 자체 연속혈당센서 솔루션을 25년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파니'를 허가/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시장 침투율 6%에 불과>**

글로벌 인슐린 주입기 시장이 2017년 118억불에서 2025년 229억불 (25조)로 전망되고 이중 이오플로우가 주력하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시장**은 2017년 4억불=>19년 7억불=>**21년 10억불=>25년 21억불 (2.5조)로 CAGR +20%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즉, 여전히 **일반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의 4배 이상 규모) 및 인슐린 펜 및 주사기인 (웨어러블의 10배),** 즉 Non-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시장이 주종이는 가정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증감률 (%)	EBITDA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2019	0.0	0.0	0.0	0.0	n/a	n/a	0.0	n/a	n/a	n/a	n/a
2020	0.0	-12.9	-19.6	-19.6	-1,697	적전	-11.8	-40.8	-67.5	33.0	-138.7

자료: 이오플로우 컨센서스, K-IFRS 연결기준

향후 편의성/가격의 강점에 따라 시장 예측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2005년 Insulet사의 '옵니 팟' 출시된 이후 사용 환자수도 (현재 독점) 아직 30만여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만큼 잠재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장침투율이 6% 수준). 결국 향후 수년내 2.5조 이상의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시장에서 기존 Insulet에 (나스닥 상장 PSR 16배, 21년 매출 1.3조 추정, 2형환자용 매출도 30%대 차지) 이어 2번째로 진입한 이오플로우의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 인지 가늠하는 것이 동 주가의 방향성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100억=>1000억 매출 목표 (2~7만명 환자), 연 30만대=>6백만대까지>

일단, 회사측 목표는 22년 100억 매출 시작으로 23년 400억대 후반대 24년 ~800억, 25년 1000억 수준 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이 수치는 비 인슐린 부문 (비만, 알코올성 지방간, 알츠하이머 등) 매출 잠재력은 제외한 것이다. 이 부문의 잠재력은 최근 샌플라나 Joint Venture의 (자이힉과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기반 비만 및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등을 공동 개발) 향후 성과로 파악 가능할 것이며 진척 상황에 따라 이오플로우 가치에 상당한 규모의 잠재력 플러스 요인이다. 관련, 2021년 10월 유상증자(1,134억원/발생가 37,800원/3백만주, 22년 1월 26일 상장예정)를 통해 본격적인 CAPA 증설에 나선다. 현재 연간 인슐린 펌프 CAPA는 30만대 수준에서 2022년 300 만개, 향후 글로벌 수요에 맞춰 2023년 추가 증설 및 해외 CMO를 통해 연간 CAPA 60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은 인슐린부문만을 기준으로 동사의 계획을 살펴본다. 중기적으로 25년까지 최첨단 신제품 '이오파이' (웨어러블 일체형 인공췌장)까지 출시 목표 감안하면, 매출 1000억은 환자수로 2만~7만명에 해당되는 수치가 된다 (평균 5만명, 보험수가 적용비율/ 기본단가 (현재 1회 4.4만원\*104개/1년=4.7백만원)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날 것). 이 수치는 현재 (21년) Insulet 환자수의 약 1/5 수준에 해당된다. 향후 시장의 고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25년에는 Insulet의 1/10 수준 이하일 것이다. 이오플로우의 제품로드맵과 생산 capa를 제때 갖춘다면 무리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Peer valuation: PSR 10배 증후반>

한편, 동 업종의 시장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 Peer는 나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선두업체인 Insulet (PODD)이다. 시총 20조, 21년 매출이 1.3조 수준으로 추정되니 PSR 15배 수준이다. 텍스컴 (DXCM, 연속혈당측정기)은 시총 55조로 PSR 18배 수준이다. 한편, 아직까지 별 매출을 (21년 2분기 첫 1.4억 매출, 연가 10억 이하)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오플로우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의 변화는 시장 성장성 betting인 것으로 해석된다: 20년 12월 24일 (필자 첫 Attention리포트 발간, 60,400원/외인지분 7.1%=> 21년 10월 29일 (유증 (26% 희석, 1134억) & 무증 (100%) 발표 직후일, 53,300원/ 11.7%)=>22년 1월 현재 10.88%. 글로벌 대형펀드 B사, 북유럽 N사 등 중장기 투자성향 지분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인슐린 시장으로 확대: 자이힉과 Joint Venture (비만및...), 네프리아바이오 (인공신장)>

21년 12월 28일, 미국 소재 100% 자회사 이오플로우(EOFlow)가 자이힉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이힉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술 벤처회사다. 양사가 설립한 산플레나(SanPlena)은 미국 자회사가 1500만달러(약 180억원)를 투자해 70%의 초기 지분을 확보한다. **자이힉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분사한 바이오테크(BT) 기업으로 스티븐 블룸 경(Sir Stephen R. Bloom)과 그의 연구진들이 이끌고 있다. 스티븐 블룸 경은 비만 및 당뇨 등 내분비 대사질환 관련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당뇨, 내분비, 대사질환과를 이끌고 있다. 합작사는 자이힉과 착용형(웨어러블) 약물주입기 기반 비만 및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자이힉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옥신토모듈린', '펩타이드 YY 유사체' 등 비만 및 NASH 치료 관련 후보물질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옥신토모듈린 등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당뇨 및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짧은 반감기와 구토증, 복통 등 부작용으로 상용화 사례가 없다.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주입기로 피하 주입을 하되 부작용 전조증상 발생 시 일시 주입 정지나 주입량 조절로 이를 회피, 효과적인 지속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산플레나는 이러한 접근법으로 관련 후보물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플레나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3개월 내에 체중 15% 감량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후보물질로 **이미 임상 1상 결과 마친 상태이며 2023년 말에 기술이전 및 나스닥 상장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년 7월 설립된 100% 자회사 파미오에서도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약물전달 플랫폼을 적용 한 웨어러블 제약 사업도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한편, 77% 지분보유 자회사인 **인공신장 개발 전문기업 네프리아 바이오**는 21년 연초 미국 드렉셀대학교와 나노 신소재 맥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을 통해 미국 드렉셀대학교가 보유한 나노 신소재 맥신(MXeNe)을 인공신장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핵심 구동부 기술인 '저전력형 고성능 전기삼투펌프기술 (EOPump)'를 활용하는 것이다. 듀렉셀 대학의 Filter에 이오플로우가 pump의 크기를 적절하게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숨가쁘게 달려 온 발자취는...>

2011년 9월 설립. 18년 4월 닥스컴과 MOU체결. 19년 7월 이탈리아 메나리니와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독점계약 체결. **20년 9월 상장. 21년 1월 전환사채 발생 (350억), 21년 4월 이오파치(휴온스물) 판매 개시,** 5월 유럽 CE인증 (월부터 우선 5개국부터 수출 시작), 7월 자회사 파미오 설립, 8월 제3자 배정 유증 (35억), 10월 28일 유무증 (유증26% 유증, 100% 무증) 발표, 12월 7일 인도네시아 PT. Prasasti Nusantara Sukses(PT. PNS)와의 EOPatch 5년간 453억 규모 독점계약, 12월 27일 중국 시노케어 (시총 3.1조원, 혈당측정의료기기업체로 10월에 이오플로우 (40%지분)와 Joint venture 설립하기로 했음-22년 초 설립)) 지분 취득 (92억 규모).

<향후 watch point: 국내보험적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UAE 등>

국내의 경우 21년 4월부터 판매 개시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다. **2022년 상반기 EOPatch에 대한 국내 보험 적용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12월 **인도네시아** 메디컬 제품 업체 PT. Prasasti Nusantara Sukses(PT. PNS)와의 EOPatch **독점계약 (21년 12월 ~ 26년 12 월)** 공급품목은 'EOPatch', 'ADM', 'Narsha', 'EOBridge' 등이다. 본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연간 최소구매수량이 계약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인증 규정 상 유럽 CE 대체 인증도 가능한 만큼 제품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즉각적인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3) 인도네시아는 아직 Insulet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인 만큼 선점 효과 가능하다. 이탈리아향 (로마/나폴리등 3개 지역) 조만간 구체적 소식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차원으로 Support중인 UAE향도 주목한다. 한편, 중국 최대 혈당측정 의료기기 업체인 시노케어와의 JV설립을 통해 중국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뇨 환자를 보유하고 (인도/미국의 합보다 큼) 있다는 점에서 그 진척은 지속 watch point이다. 그런데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1/10 수준에 불과해서 잠재력은 매우 크다. 단, 인허가 및 임상시험 기간 고려 시 23년부터 매출 가시화가 예상되고 로열티 기준으로 이오플로우에 반영된다.

<유증자금 주요 사용처>

시설자금 곤지암읍 수양리 공장 리모델링 및 설비투자 / CMO 설비투자 532억

운영자금 임상시험비용(EOPatch, EOPactch(3mL), EOPatch X 등) 207억

운영자금 연구개발비용(DDS Patch, 신제품 개발 등) 212억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매(펌프 및 패치생산 원재료) 132억

<이오플로우의 기술력/차별점>

이오플로우 제품은 Insulet제품의 크기나 무게와는 비슷하지만 3.5일을 사용가능해서 경쟁사 3일 대비 편이성이 높아진다. 1주일 단위로 보면 2번 주기적 주입하는 요일이 특정되어 3일간격의 경쟁사와 비교할 때, 주입시기를 혼동하는 일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상영화에 기술 장벽이 존재한다. 작게 만들어야 하고 가벼워야 하며 저전력 고출력 그리고 정밀하게 주입하는 구동부 개발의 난제등이 그것이다. 이오플로우의 핵심 원천기술은 저전력형 전기삼투펌프이다. 김재진 대표이사는 MIT 전자공학 졸업 후 모토롤라 반도체, 인텔에서 엔지니어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이오플로우의 현 임원진 중 2명은 Insulet 출신이다.

<당뇨병 종류>

당뇨병은 그 기전에 따라 제 1 형 당뇨병과 제 2 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 1 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 2 형 당뇨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제 2 형 당뇨병은 성인이 된 후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생기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한다. 제 1 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소아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다.

Investor Relations 2022

EOFLOW

## 02.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와 인공췌장이 혁신을 주도



Investor Relations 2022

EO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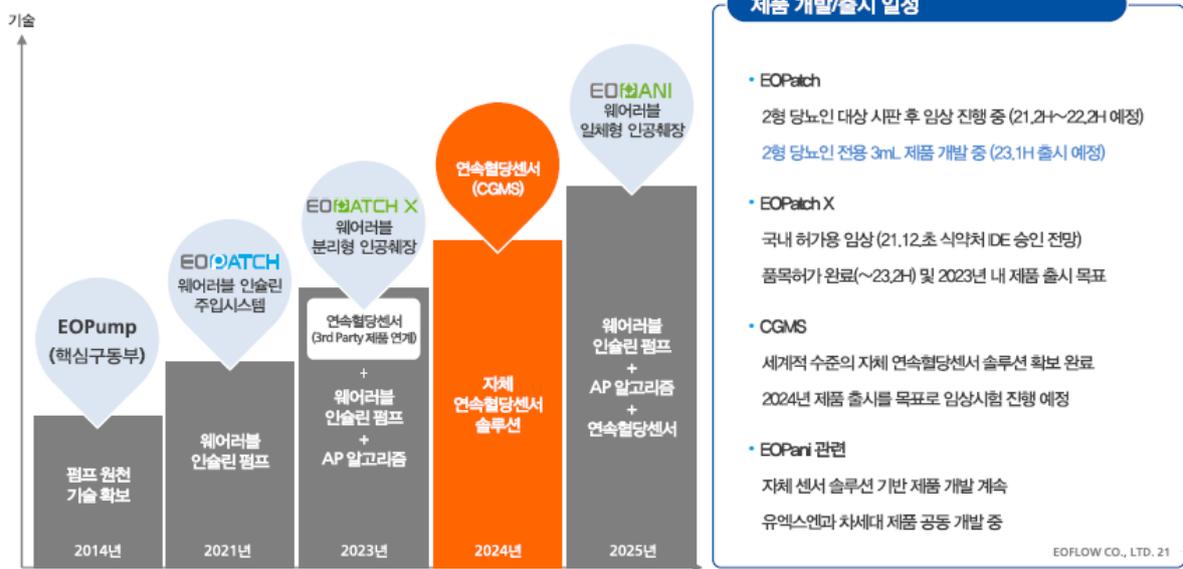
## 02. 당뇨 부문 로드맵 (현재)

목표: 당뇨인을 위한 end-to-end 스마트 케어

포커스: 완성도 높은 토털솔루션: 펌프(完); 디지털케어 (클라우드 & 앱)(完); 연속혈당센서; 2형당뇨용 제품군

자체 연속혈당센서 솔루션 확보 (world-class): 2024년 제품 출시 목표 (NEW)

세계 최초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EOPani) 2025년 상용화 목표



Investor Relations 2022

EOFLOW

### 03. 이오패치 통합 당뇨 관리 시스템

이오패치 시스템은 웨어러블 주입기 외에도 주변기기 연계기능, 컨트롤러, 컨트롤 앱, 클라우드 서버, 관리 앱 등으로 이뤄지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end-to-end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EOFLOW CO., LTD. 11

Investor Relations 2022

EO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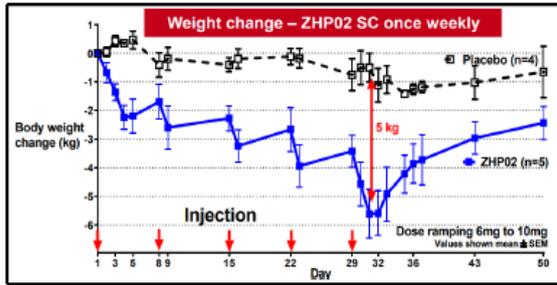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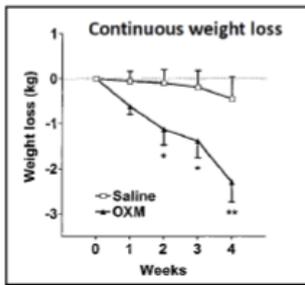
### 03. 설비투자 계획

근지암: 2022년 중 연 300만대 생산 능력 확보  
 해외 CMO: 2023년 이전까지 연 300만대 생산 능력 확보  
 총 투자액 약 200억원

<p><b>근지암 신공장</b></p> <p>자동화설비 생산기지 구축 근지암을 수양리에 위치해 국내외 고객사 빠른 대응 가능</p> <p>2021년 07월 착공 2022년 12월 완공</p> <p><b>주요 생산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오패치 및 이오플럼프</li> </ul> <p><b>생산 Cap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1H, 200만대 Capa 증설 목표</li> <li>~22.2H, 300만대 Capa 증설 목표</li> </ul>	<p><b>한국(성남)</b></p> <p>現 이오플럼프 생산기지</p> <p>주요 사업: EOPump</p> <p>생산 Capa: 연간 30만개</p> <hr/> <p><b>한국(충북 진천)</b></p> <p>現 이오패치 핵심 생산기지</p> <p>주요 사업: 이오패치</p> <p>생산 Capa: 연간 30만개</p> <hr/> <p><b>CMO(예정)</b></p> <p>수출용 제품 전문 생산기지</p> <p>주요 사업: 해외 수출용 이오패치</p> <p>생산 Capa: 연간 300만개</p> <hr/> <p><b>중국(예정)</b></p> <p>중국 및 홍콩, 타이완, 마카오 지역 판매중심 생산기지</p> <p>주요 사업: 중국 지역 판매용 이오패치</p> <p>생산 Capa: 중국 파트너사 시노케어와 협의 중</p>
---	--

05. 비즈니스 영역 확대 2: 비인슐린 주입기 (2) SanPlena – 고도비만 및 NASH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 블랙버스터급 약물 2종
- BM: Zhipp과 이오플로우 간의 JV (SanPlena)
  - 이오플로우:Zhipp 소유구조 = 70:30
- 타겟 약물: OXM analog (GLP-1 + Glucagon dual agonist): 고도비만 및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 목표: 3개월 이내 체중 15% 감소
  - 현재 비만치료제 (Wegovy): 15% 이상 체중 감소에 68주 걸림
- Who?: Sir Steven Bloom, 세계적 명성의 gut hormone 전문가 (공로로 백작 수여); Imperial College of London 내분비과 수장
- Why EOFlow?
  - OXM analog 심한 부작용 (구토증, 복통 등): 이미 3개 대기업에서 당뇨치료제 임상 포기 (당뇨치료제: 비만치료제보다 적은 용량)
  -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피하주입기 이용하여 소량 지속주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부작용시 일시 정지 가능 (약효 3분)
- 현황 및 전망: 1상임상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 SanPlena는 2상 임상부터 시작 가능.
  - 2023년경 License out 가능.
  - Multi-billion-dollar LO 잠재력
  - 예상 투자액: 200억원+



04. 비당뇨부문 발전전략 현황 2: 비인슐린 주입기

2021.07. '웨어러블 제약' 자회사 파미오 설립 (현재 100% 이오플로우 자회사)

핵심 BM: 파미오가 주도하는 약물-기기 복합형 제약사업

해외 제약사와 공동개발 2건 이상 협의 진행 중  
내부 제약 파이프라인 4건 이상 진행 중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 웨어러블 제약으로 발전

신규 약물주입기 제품 개발 및 약물 재창출

Opportunity 1

특히 종료 약물 중 웨어러블로 수요 재창출 (통증관리; 항암; 항생제 등...)

Opportunity 2

반감기가 짧은 신약 후보물질의 조기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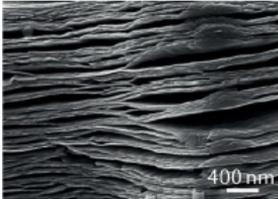


Investor Relation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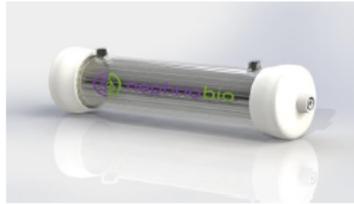
03. 비즈니스 영역 확대 1: 인공신장

2021.01. 미국, 네프리아(Nephria) 설립 (이오 투자: \$1.0M; 100%)  
 2021.08. 엔젤투자 완료 (투자 후 회사 가치: 약 \$26M; 이오 지분: \$23M)

EOFLOW



Drexel 대학에서 라이선스 받은 MXene 소재



Nephria 첫 제품 (예정): 투석용 카트리지 (필터)



Nephria 웨어러블 투석기 개념도

- ✔ 1H, 2022: Pilteo prototype & Series-A funding (이오 지분: \$80M+ 예상)
- ✔ 2H, 2022: Pilteo sample & V&V
- ✔ 2H, 2023: Pilteo product launch (이오 지분: \$300M+ 예상)
- ✔ 1H, 2024: EOCARRT sample & V&V
- ✔ 2H, 2025: EOCARRT product launch (상장 or M&A)

EOFLOW CO., LTD. 26

Investor Relations 2022

01. Insulet 기업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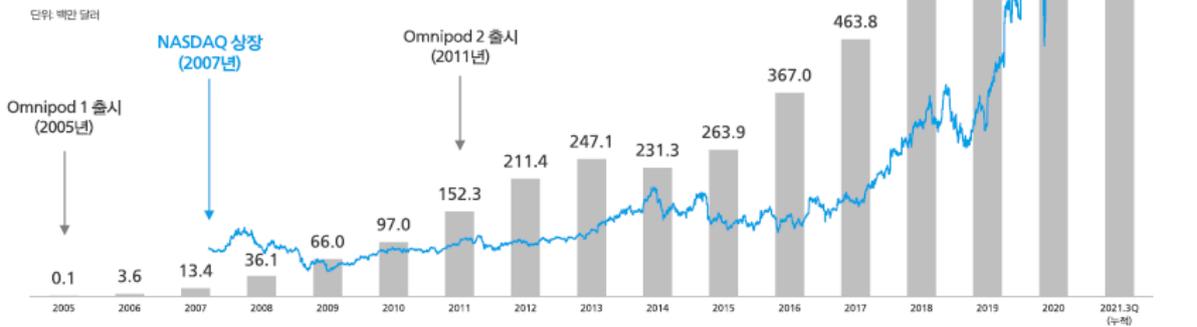
Insulet 시가총액 23.4조원 돌파

EOFLOW

**Insulet**

<b>16년</b>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	<b>92%</b> 매출액 CAGR (2005-2020)	<b>1,800%</b> 시가총액 증가율 (2007-2021)
---------------------------	------------------------------------	---------------------------------------

Insulet 매출액 =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 규모



주 1: Insulet 시가총액은 2007.05.15 상장일부터 2021.12.02까지 증가 기준  
 주 2: 원화는 2021.12.02 환율 기준

EOFLOW CO., LTD. 9

Stock Data

KOSDAQ(1/7)	995.2pt
시가총액	6,717 억원
발행주식수	14,570 천주
액면가	100 원
52 주 최고가 / 최저가	77,337/43,750 원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58 억원
외국인 지분율	10.8%
배당수익률(21.12E)	0.0%
BPS(21.12E)	410 원

주가수익률 (%)	1W	1M	6M	1Y
절대수익률	-5.9	2.2	-20.4	-30.9
상대수익률	-2.2	2.4	-15.4	-31.5

주주구성

김재진 (외 6 인)	16.8%
이오플로우우리사주 (외 1 인)	0.6%
이오플로우우리사주 (외 1 인)	0.6%

Stock Price



이오플로우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일시</th> <th rowspan="2">투자의견</th> <th rowspan="2">목표가격</th> <th rowspan="2">목표가격 대상 시 시점</th> <th colspan="2">과리율</th> </tr> <tr> <th>평균주가대비</th> <th>최고(최저)주가대비</th> </tr> </thead> <tbody> <tr> <td>2022.1.10</td> <td>Not rated</td> <td>Attention</td> <td>1년</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목표가격 대상 시 시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2.1.10	Not rated	Attention	1년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목표가격 대상 시 시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2.1.10	Not rated	Attention	1년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단기 주가 상승		4.4%	
		중장기 주가 상승		53.6%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단기 주가 하락		0.4%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단기 주가 박스권		5.1%	등급별 비중
		Attention		36.5%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합계			100.0%	